



‘동촌 해상풍력’ 금융지원 체계 가동

도, 고창군 · 우리금융그룹 · 동촌풍력발전 등과 협약

도내 첫 민간주도 중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고창 상하면 용정리 일원 공유수면에 76.2MW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군 금융권과 손잡고 도내 첫 민간 주도 중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동촌 해상풍력’의 추진을 위해 금융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고영철 신흥중앙회장,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 동촌 해상풍력은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일원 공유수면에 76.2MW(6MW×12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63GWh로 고창군민 약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온실가스 연간 7만 톤 감축 효과로, 소나무 51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고창군은 행정 지원과 함께 대상 사업 발굴, RE100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신흥과 우리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생산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사업 시행을 맡은 동촌풍력발전은 지역인프라 확대 첫 사업인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생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은 발주법에 따른 지원금 60억원을 확보하게 되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 향후 20년간 약 200억원 규모의 수익

을 주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우리금융그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지역인프라펀드’의 전국 1호 사업으로 고창 동촌 해상풍력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3,6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확보된 금융 지원은 고창군이 추진하는 RE100 기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된다. 도는 이

번 사업과 연계해 함께 추진 중인 서남권 및 군산 해상풍력을 포함, 풍력 기자재 기업 유치와 지원항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고창의 풍력 자원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촌 해상풍력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동촌해상풍력 금융지원 및 투자사업 업무협약식에 이원택 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고영철 신흥중앙회장,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 심덕섭 고창군수, 이원택 도지사, 고영철 신흥중앙회장,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도, 폭염·가뭄 대응 재난관리기금 25억2000만원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25억 2,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도 재난관리기금 17억 6,000만원과 시·군 재난관리기금 7억 6,000만원 등 총 25억2,000만원이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해 농업용수 확보, 축산농가 피해 예방, 안전취약시설 정밀점검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민 생명·재산 보호,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

먼저 폭염 대응에는 도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투입한다. 야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생수와 얼음을 지역자율방재단과 봉사단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주요 도로에는 살수차를 운영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해 나간다. 쿨토시와 자외선 차단모자 등 폭염 예방 물품도 지원해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한다.

가뭄 대응에는 도와 시·군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전수

답과 밭, 들녘 말단부 등 가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중형관정 약 20공을 개발하고, 양수기와 물탱크 등 장비를 지원한다. 하상굴착과 간이양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해 영농 차질을 줄일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는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와 시·군이 각각 2억5,000만원을 부담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완화제 25톤을 공급하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

를 예방한다.

집중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점음시 철보면 복지화면에 대해 서도 도와 시·군이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입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외벽 균열과 누수, 지반침하 등 건물 구조 전반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과 축산 분야의 안정적인 영농·사육 여건 유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기자

토·일요일신문 쉽니다

전북 호남·전라선 운행 확대

내달 1일부터 고속철도 KTX·SRT 통합 운영 따라

요금은 평균 10% 인하… 철도 이용 환경 개선 기대

김윤덕 국토부장관 “도민 숙원… 서비스 개선 지속적”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철도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면서 전북을 지나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운임은 평균 10% 인하되는 등 철도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TX와 SRT 통합 운영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격에 합리적으로 낮추고 이용 편의는 대폭 높였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주)SR이 운영하는 SRT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 달부터 통합 운영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분리 운영되던 고속철도 차량은 KTX 체계로 통합 운용되고, 기존 SRT는 KTX-산천 명칭으로 운영된다.

통합 운영으로 고속철도 공급 능력도 크게 확대된다. 전국 기준 KTX 좌석은 하루 평균 1만6천 석, 주간 기준 11만6천 석이 추가 공급된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에는 지난해보다 23회, 주말에는 26회 늘어나 국민들의 열차 이용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돼 평균 10% 인하되며, 마일리지 적립과 각종 할인 혜택, 편의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만호기자



또한 서울역과 용산역,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열차를 하나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지역의 철도 서비스 개선 효과도 두드러진다. 호남선은 주중 운행 횟수가 기존 95편에서 100편으로 확대되며, 전라선도 40편에서 45편으로 증편된다. 특히 전라선 수서행 열차는 기존 하루 4편에서 8편으로 두 배 늘어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좌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주말 기준으로 호남선은 기존보다 482석, 전라선은 2,511석이 추가 공급돼 명절과 휴가철 등 성수기 열차 이용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장관은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 곳곳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철도시대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고속철도 통합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편리해진 철도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국토를 만끽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KTX와 SRT 통합 운영은 좌석 부족 해소와 운임 인하, 예약 시스템 일원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철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줄 소식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준비 ‘분주’**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무주군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